

세플러 압도적 우승, 타이거 우즈급

더 오픈 4타차 우승...3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램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세플러(사진)가 또 한 번 메이저 무대를 지배했다. 세플러는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에서 열린 브리티시 오픈(더 오픈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기록하며 최종 합계 17언더파 267타로 2위와 4타 차 우승을 거뒀다.

이번 우승으로 올해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4대 메이저 중 세 개를 제패했다.

마지막 홀에서 파 퍼트를 마친 세플러는 루틴처럼 차분했지만, 가족을 보자 두 팔을 높이 들어 환호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 "세플러는 모두가 넘어서야 할 기준"

마스터스 챔피언 로리 맥일로이는 "최근 2~3년간 세플러가 보여주는 지배력은 역사적으로도 손꼽을 수준"이라며 "그가 현재 골프계의 기준점"이라고 극찬했다. 맥일로이는 홈 팬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최종 7위에 올랐다.

세플러는 오픈 챔피언십 역사상 4라운드 모두 68타 이하를 친 네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우승은 메이저 4승째이자 올해 두 번째 메이저 우승이다.

그는 2022년 마스터스, 2023년 마스터스, 2025년 PGA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오픈까지 모두 3타 이상 격차로 우승한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한 해에 메이저 대회에서 4타 차 이상 다승을 기록한 선수는 벤 호건(1953), 타이거 우즈(2000) 이후 세플러가 세 번째다.

세플러는 첫 홀부터 날카로운 어프로치 샷으로 버디를 잡으며 기세를 올렸다. 8번 홀에서 벙커샷 미스로 더블 보기를 범했지만, 9번 홀 버디로 곧바로 만회하며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어갔다. 그는 "마지막 18번 홀을 여유롭게 걸어가는 기분은 정말 특별했다"며 "이번 대회는 멘탈적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세플러는 이제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인 US 오픈을 노린다. 세플러와 같은 시대에 뛰는 선수들은 "타이거 우즈 이후 이런 지배력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다"며 혀를 내두른다.

■ 세플러 최근 2년 메이저 대회 성적

연도	대회	성적	우승 타수·격차
2022	마스터스	우승	10언더, 3타 차
	PGA 챔피언십	공동 2위	-
	U.S. 오픈	공동 2위	-
	더 오픈	공동 8위	-
2023	마스터스	우승	12언더, 4타 차
	PGA 챔피언십	공동 2위	-
	U.S. 오픈	공동 3위	-
	더 오픈	공동 6위	-
2025	PGA 챔피언십	우승	15언더, 5타 차
	더 오픈	우승	17언더, 4타 차
	마스터스	공동 5위	-

파퀴아오 복귀전서 무승부

"승리 도둑 맞아" 판정 논란



필리핀의 전설적인 복서 매니 파퀴아오(46·사진)가 4년 만의 복귀전에서 아쉽게도 WBC 웰터급 타이틀을 거머쥐지 못했다. 20일 미국에서 열린 마리오 바리오스와 12라운드 대

결은 논란 속에 다수판정 무승부로 끝났다.

만약 파퀴아오가 승리했다면 복싱 역사상 두 번째로 나이 많은 메이저 세계 챔피언으로 기록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 명의 심판이 115-113으로 바리오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 기록 도전은 무산됐다.

이번 경기는 파퀴아오의 4년 만의 복귀전이였다. 그는 상대보다 16살이나 많아 언더독으로 평가받았지만, 경기 전부터 많은 팬과 전문가들의 기대를 모았다. 경기 후 파퀴아오가 사실상 이겼다는 평가가 다수였음에도 판정이 번복되지 않자 복싱계는 즉각적인 반발을 나타냈다.

많은 복싱 전문가들과 팬들은 파퀴아오가 승리를 거뒀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로 모터 루 디벨라는 "이런 결과는 복싱계에 또 한 번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으며, 언크라운드의 앨런 도슨은 "파퀴아오가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평가했다.

펀치 통계(CompuBox)에 따르면, 파퀴아오는 577개의 펀치 중 101개를 적중시켰고, 파워 펀치에서는 81-75로 앞섰다. 반면 바리오스는 658개 중 120개를 명중시켰다.

경기 후 파퀴아오는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재대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선거로 훈련을 늦게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더 오래 준비할 것이다. 필리핀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재 경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파퀴아오는 올해 초 필리핀 상원의원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으며, 그 후 복귀전을 준비해왔다.

14번 승부차기에서 9번이나 실축

잉글랜드-스웨덴 '최악의 성공률'

유로 2025 준결승 잉글랜드와 스웨덴의 경기가 유럽 여자축구 역사상 가장 길고 기묘한 승부차기로 관심을 끌었다.

120분의 접전 끝에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두 팀은 14번의 승부차기 중 9번을 실축했다. 승부차기 성공률은 36%로 UEFA 여자 유로 역사상 최저 기록이었다. 이전 최저 기록은 2017년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의 준결승

(43%)이었다.

스웨덴 골키퍼 팔크는 승부차기에서 4개의 슈트를 막아 내며 여자 유로 대회 신기록을 세웠으나 결국 패배를 막지 못했다.

현지 해설진은 "정말 숨막히는 경기였다. 이렇게 많은 실축이 나오기도 이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칭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T.562.279.4200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